윤장현 시장 "무등산 자락에 캠핑촌 만들겠다"

적벽 이어 월드컵경기장 등 개방 시민과 공유

우치동물원 자연친화적 전환… 무료화도 검토

윤장현 광주시장이 녹색공간을 대폭 개방해 지역민의 '자연복지'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시민의 입장이나 사회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절차와 규제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공무원들의 관성적인 행정 스타일에 변화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시장은 2일 시청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등산 자락에 캠핑촌을 만들고, 최근 개방하기로 한 동복수원지 내 적벽에 이어 용연정수장 주변과 월드컵경기장 등 시 소유 시설을 개방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시장은 "국내 국립공원 중 캠핑장이 없는 곳은 무등산이 유일하다. 일부에서는 캠핑장이 시끄럽고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데, 이는 캠핑장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캠핑문화도 매우 성숙돼 있다"면서 "요즘 시민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은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기는 이른바 '자연복지'를 누리는 것인 만큼 시에서도 캠핑장 등을 늘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우치공원 내 빈 녹지공간을 활용한 캠핑장 조성 등도 검토해 볼만하며, 과거 광주시민의 꽃놀이 장소이자 소풍 명소이기도 했던 용연정수장(동구 지원동) 주변을 개방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광주시민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자연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또 월드컵경기장 개방과 함께 창단 2년만에 2부리그로 강등된 광주FC의 지원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윤 시장은 "광주FC에 매년 30억원 안팎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광주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따지면 과연 언제까지 수십억원의 예산을 축구단에 지원해야 할 지 고민"이라면서 "차라리 광주FC에 대한 지원금을 유소년 축구팀 육성을 위해 투자하면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 우치동물원의 동물복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입장료(1인 1000원) 무료화 계획도 내놨다. 윤 시장은 "우치동물원에 가보니, 쇠찰상에 갇혀 있는 원숭이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마저 느껴졌다"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동물들이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사파리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받고있는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시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힘든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시청직원의 업무가 의외로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신규사업도 예년보다 3배나 많이 확보했다"면서 "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아직도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바람에 시민을 위한 긴급한 일마저도 더디게 진행될 때는 속상하기도 하다"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윤 시장은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일부 직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시민이 원하는 일인데도, 일단 '안된다'는 말부터 꺼내는 공직문화 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인의 날' 기념식 2일 오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금고 공개경쟁

농협 13년 아성 깨지나

전남도는 2일 2015년부터 3년 동안 도의 세입·세출, 기금 등 전반적인 자금을 관리할 은행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전남도의 자금을 관리해온 농협은행 및 광주은행과의 금고 지정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

금고 지정은 제1금고와 제2금고 복수금고로 하고 일반 공개경쟁 방법으로 '전남도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기관 중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신청 자격이 있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와 협력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이다.

전남도는 오는 8일 금융기관 제안서 작성 설명회를 갖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월 말까지 금고 관리 은행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1금고는 농협,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며, 농협은 지난 2001년부터 13년간 전남도 제1금고를 맡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낙연 지사 "섬·해안선·갯벌 소중한 관광자원"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결의

민선 6기 100일을 앞두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2일 전남 해안에 산재돼 있는 섬과 해안선, 갯벌 등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가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각계 유력인사들이 전남 섬의 잠재력 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능성을 공유한 뒤 공직자들에게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정례조회에서 "최근 만난 (구본걸)LF(옛 LG패션) 회장이 전남 섬을 프랑스 남부의 섬처럼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대중 관광이 아닌 특정 계층을 겨냥한 '엘리트 관광'의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그는 또 "국내의 한 유력인사도 앞으로도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섬을 하나 추천해주면 구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지역 출신 한 인사는 전남의 미래는 섬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섬만이 아니라 해안선과 갯벌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수치까지 밝혀가며 역설했다.

그는 "전남은 2200여 개(전국의 65%)의 섬을 가지고 있고, 해안선이 6500km(전국의 46%)로 지구의 반경(5000km)보다 더 길며, 갯벌은 1만37㎢(전국의 47%), 바다는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이것이야 말로 전남의 보물단지"라고 설명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치를 끌어올리자는 말이다.

한편 이날 조회에서는 직원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장 부킹, 인사청탁 등 편의를 제공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유료전환 수익보다 복지 편익 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제도'의 사회적 편익이 유료로 전환했을 때 수입 예상치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의 편익'에 관한 교통 복지효과 세미나에서 한국 교통연구원의 최진석 연구원이 발표했다.

최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지난 2012년 기준 227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자살자 감소효과는 연간 75명이어서 고령자의 자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4억6000만원인 점을 감안해 자살감소 편익은 연간 326억원으로 추정했다. 우울증 감소 효과는 6만5575명에게 나타나 그에 따른 편익은 218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 교통사고 감소,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의료비 절감효과는 각각 702억 원과 621억 원으로 집계했다.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 지원예산 절감액은 272억원, 지하철 이용과 관련된 관광산업 활성화의 효과로는 131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계량화가 가능한 지하철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2012년 기준 2270억 원으로 집계했다.

반면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지하철공사 등이 주장하는 미납부 운임 3061억원이 아니라, 유료 전환시에도 지하철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43.5%의 운임으로 최대 연간 133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강조하던 일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향후 지하철 경로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일 문화도시추진단장 등

문체부 인사 앞두고 일괄 사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일(5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1급 고위공무원들이 자진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김종덕 장관의 취임 이후 후속 인사를 앞두고 1급들이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각자 판단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지휘하고 있는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현직에 임명됐다. 이밖에 동반 사표를 제출한 1급 인사는 행시 27기인 최규학(53)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 김용삼(57) 종무실장, 신용언(57)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원용기(52) 해외문화원장, 임원선(52) 국립도서관장 등 5명이다. 행시 28기인 방선규(55) 국민소통실장은 직위해제 상태여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덕 장관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이후 1급 등 주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